

어느 날 밤 벨사살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한참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참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너무 무섭게도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궁전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워 벨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글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라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는 숫자나 날짜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잴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그리고'라는 '우'에 '바르신'은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여 왕의 나라가 나뉘고 바사 메데에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과 금 목걸이를 선물하고, 고위 관직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사메대 군대가 수로의 물을 돌려 수로를 통해 침입해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첫째, 세시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3주 동안 세번의 장례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는 것도 모르고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경고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벨사살은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분리되고 심판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부족함 없이 가지고 누렸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모자른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높인 교만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게 하고, 그의 잔치의 분위기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누구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부족하고, 교만하고, 죄악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룩해 주신 의의 무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의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개해도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0(월)	1/21(화)	1/22(수)	1/23(목)	1/24(금)	1/25(토)	1/26(주일)
창 25-27	창 28-30	창 31	창 32-34	창 35-37	창 38-41	창 42-43

Q T

이번 주 QT 말씀

1/20(월)	1/21(화)	1/22(수)	1/23(목)	1/24(금)	1/25(토)	1/26(주일)
요 6:22-40	요 6:41-59	요 6:60-71	요 7:1-13	요 7:14-24	요 7:25-36	요 7:37-5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3. 나의 인생을 세시고, 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해 주세요.